



박태원 교수의

불교를 보는 인생

나는 가을을 심하게 탄다. 고운 단풍과 노란 감들을 정갈하게 담아내는 가을 하늘이 아찔한 유혹으로 다가갈 때면, 차분하게 진행되던 일상의 패턴이 쉽게 동요하곤 한다.

고 있으면, 항상 불안하고 허전하다. 허세 아니면 열등감만 깊어질 뿐. 이런 사정을 통찰한 사람은 자기 변화에서 온전한 내 몸을 챙기려 한다.

이 즈음이면 누구나 사색적이 된다. 인생에 대한 상투적인 질문들이 다시금 생기를 머금는다. "나는 왜 사는가? 인생의 의미는 무엇인가? 어떻게 살아야 보람있는 인생이 되고 후회하지 않을 수 있을까?" 진부하긴 하지만 언제나 의미 있는 물음이다.

이 대목에 이르러 '어떤 변화'를 추구할 것인가를 묻게 된다. 지난해의 주인공이 올해에는 어떻게 변해 있어야 든든하고 뿌듯할 수 있을까? 주인공이 인간 몸으로 살아가면서 추구해야 할 변화는 무엇일까?

때 되면 재수 없이 도지는 난치(難治), 불치(不治)의 지방쯤으로 간주하고, 아울러 몇 잔 기울이며

이성 능력을 발달시키고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확장하는 일은 아마도 인간만이 가능한 일인지 모르겠다. 인생의 의미나 보람을 찾는 일은 인간만의 독특한 면모를 발견, 성숙시키는 일과 깊은 관련이 있을 터. 그렇다면 무엇이 발전한 만큼, 사람이 성숙한 만큼, 인간 몸으로 사는 의미와 보람과 가치가 확보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성에도 그늘이 있다. 이성이 분별지(分別知)에 그치면 오히려 자기 과별의 함정을 판다.

‘왜 사는가’ 스스로 묻자

그렇듯한 인생 변명으로 소리 높여다가는 마미코 불등고 노래가 사에 찾아보기도 할 것이다. 그러다가 일상의 위세가 '지금'이 어느 때인데 이렇게 한가로운 감상에 젖어? 하고 질타하면, "그래, 내가 무슨 철학자라고. 그 문제 해결한다고 돈이 나오나 밥이 나오나? 당장 할 일이 태산 같은데 다시 허둥지둥 속으로 던져 버린다. 그리고 덧붙이는 자기 위안한 마디. '어쨌거나 열심히 살면 되는 것 아니냐?'

내뿜 쟁기기 급급 '사람의 보람' 뒷전

그런 분별 이상의 그늘에서는 사랑도 왜곡되기 십상이다. 그러면 어쩌야 하냐? '지혜와 자비 키우기'가 부처님 해답이다. 이성의 분별마저 극복하는 통찰력(지혜), 그 지혜에서 저절로 발산되는 넓고 깊은 사랑(자비)의 능력을 동시에 키워 가는 것이야말로 사람 몸으로 사는 보람이라 한다. 지혜와 자비를 두 발로 우뚝 서려는(兩足尊) 노력이야말로 사람으로 사는 최고의 의미라 한다.

열심히 성실하게 살았더니, 작년보다 올해가, 어제보다 오늘이 좀더 지혜롭고 자비로워졌다면, 인생 제대로 채우고 있는 것이다. 보람있고 가치 있으며 의미 있게 살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소유물이 위협받는다며 주눅을 필요 없다. 아니, 그런 사람은 조금도 주눅들지 않는다.

울산대 철학과 교수 (twpark@uou.ulsan.ac.kr)

Q: 수행 임할때 마음가짐은

A: 믿음과 실천 하나로 흔들림없게

참불자의 길

초심자 수행, 이것이 궁극

체계적인 수행을 통해 자신의 참모습을 깨달으려는 불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불교 초심자인 변종호 씨(29·컴퓨터 프로그래머). 몇 권의 책을 통해서만 불교를 접한 변씨는 원력을 세워 수행을 하려하니 무엇보다도 해아할 지 막연하고 궁극한 점이 한 켜 아니냐. 변씨의 수행에 관련된 몇가지 질문에 대해 법산 스님(동국대 정각원장)이 대답해 주었다.

—초심자들이 수행에 임할 때 가져야 할 마음가짐에 대해서 들려주세요.

▲신심과 실천의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 중에서 한가지라도 소홀하면 수행하는 과정에서 몸과 마음이 흔들리게 됩니다. 그리고 수행에 원력을 세운 사람들은 수행계획, 즉 언제 어디서 몇 시간을 수행할 것인지를 세워야 하고, 때때로 선지식들에게 수행을 점검받아야 합니다.

—불교의 수행법에는 참선과 염불 외에 여러 가지가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것이 있습니까.

▲가부좌를 틀고 앉아서 화두를 통해 깨달음을 얻는 참선, 또 부처님을 생각하면서 명호를 부르는 염불이 대중적이죠. 지은 죄를 참회하고 반성하는 포살, 일정한 기간동안 자리에 눕지 않고 잠자지 않으면서 참선하는 용맹정진, 진언을 외우는 주력, 눈으로 경전을 읽는 간경, 석달 동안

108배·1080배·3천배 절은 하심배우는 공부

일정한 장소에 머물면서 연구와 정진하는 안거(安居)와 청소와 농사 등 사찰에서 여러 사람이 힘을 합쳐 일하는 운력도 있죠. —염불과 주력은 어떻게 다른지요.

▲방편이 다른 목적이 같습니니다. 그것은 바로 일심이 돼야



요즘 참선 등 수행에 대한 일반인들의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다. 수행의 실제에 들어가면 올바른 마음가짐과 수행법에 대해 살피는 것도 수행의 바른 길을 가는 또 다른 방법일 것이다. 사진은 재가불자들이 참선하고 있는 모습.

한다는 것입니다. 염불에는 두가지 뜻이 있는데 하나는 마음속으로 부처를 생각(念)하거나 구체화된 부처의 모습과 공덕을 생각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소리를 내어 부처의 명호를 외우는 것이죠. 주력은 문자 그대로 주문의 힘이란 뜻입니다. 짧은 주문을 진언이라고 하는데 경전 문구중에서 함축 요약된 진언을 독송해 공덕을 성취한다는 의미입니다.

—주위에서 보면 매일 108배를 하거나 1080배 3천배 등 절을 많이 하는 것을 봅니다. 절을 많이 하는 것도 수행인가요?

▲하심이 안되면 수행할 수 없습니다. 절이 바로 하심하는 수행 방법입니다. 내 몸과 마음 속에 있는 모든 집착을 버리는 행위라고 할 수 있죠. 몇 번의 절로써는 깨달음은 찌꺼기(번뇌)를 쏠아내기 힘들기 때문에 108배·1천배·3천배 등 수없이 절을 하며

업을 녹이는 것이죠. —사경은 어떤 면에서 수행이 되는지요.

▲사경(寫經)이란 경전의 내용을 그대로 베껴 쓰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경을 단순히 종이에 옮기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를 마음에 새기면서 해야 효과가 있죠. 사경을 하다보면 자연히 한자 한자에 마음을 쏟아 신란심이 없어도 정신이 집중되는데 이럴 때 비로소 수행이 됩니다. 사경할

사경은 단순한 베껴아닌 경전의 의미 마음 새기기

때 성취에 급급해 많이 쓰거나 빨리 쓰려고 하지 마세요. 그리고 사경은 일심으로 정자체로 써야 한다는 것도 잊지 마세요.

—흔히들 '화두를 잡고 참선에 든다'는 말을 하는데 화두는 무엇을 말합니까?

▲화두를 이야기 하기전에 공안의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공안(公案)은 원래 '관청의 공문서'라는 용어에서 유래된 것으로 참선 수행에서도 절대적인 규범성과 판단의 준칙이 되는 핵심적인 명제를 의미합니다. 이에 비해 화두란 공안을 이루는 선포문 중에서 선사의 답변을 말합니다. 참선자를 깨달음으로 이끄는 공안중의 핵심이 바로 화두이죠. 화두의 종류에는 대략 1천8백가지가 있는데 그 가운데 가장 유명하고 널리 참구되는 것이 '무(無)입니

김주일 기자 (jikim@buddhapia.com)

2000년 기획

禪과 21세기

동양인인 우리들에게 동양의 전통은 멀리 떨어져 있다. 그것은 물리적으로 우리 가까이 있지만 실제 우리의 사육지경에서 무의식적으로 망각된 지 오래이다. 그 가운데 선의 전통도 예외일 수 없다. 예컨대, 선의 독특한 가르침과 배움의 양식인 선문답도 동양의 삼국 중에서는 유일하게 우리 산사에는 아직도 살아 숨쉬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일반인들이 법잡하기 어려운 신비의 지대이다. 문제는 여기에 있다. 왜 우리는 동양인이면서 우리 전통에서 도망친 이방인으로 자리하고 있는가? 그것이 우리들의 체감정도 멀어져 있다해도 그것은 우리를 결어 묶어 놓은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전통은 언제나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우리 자신의 일부이며 법적이고 우리 자신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증진시키는 무엇이기에 때

문이다. 우리는 우리 것을 제쳐두고 남의 것 따라하기를 너무나도 좋아한다. 이런 습성이 교육에도 그대로 묻어 있다. 그것은 바로 교육에서 우리들의 서구추수성에 있다고 볼 수 있리라.

해방 후 근대화가 바로 서구화라는 도식으로 맞물리면서 교육의 근대화는 서구의 아이디어로 우리 교육을 새롭게 재편하는 것이었다. 이 와중에서 우리 것 즉 전통은 철저하게 미신 또는 비과학으로 평가절하 되면서 교육의 중심 무대에서 사라지는 비운을 겪게 된다. 이런 인식의 오류는 우리의 일부분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만의 것으로 착각하는 일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우리들은 모두 직접 아니면 간접으로 교육의 수혜자이다. 그러면 우리들이 받고 있는 교육

교육의 지향점 '앎과 삶의 회통'

선과 교육(1)



서명석 위국대장사 교육학

은 건강한가? 우리가 체험해 왔거나 지금 아이들이 체험하고 있는 교육은 우리의 건강한 삶에서 일정 부분 이탈해 있다. 교육은 우리들의 일상적인 삶의 핵심이다. 이 속에서 이루어지는 앎은 앎 자체를 넘어 우리들의 삶과 직접 회통하면서 우리들을 새로운 세계로 일으켜 세운다. 그러나 교육이란 앎의 용적들을 확장시키는 일이 아니라 앎이 바로 삶과 간격없이 만나면서 주체 실현의 장으로 이끄는 것이었다. 이런 생각이 이어받았을 때 지금 교육은 그렇지 않다. 그 간 우리 교육은 아이들을 앎의 장으로 이끄는 데는 성공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교육은 부족하다. 결국 앎은 교육에서 필요조건이지만 충분조건은 아니다. 우리 교육은 앎만으로 복잡하게 뒤얽혀 있기에 정확히 짚어보면 앎-중심의 교육서사이다. 이 속

에서 앎은 앎과 결별하고 독자적인 영역을 고집한다. 그러나 앎만으로 편입된 주체는 아무리 교육을 받더라도 격조는 하락하고 존재는 허기진다. 이 것이 심화되면서 주체는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으로 미끄러진다. 우리가 그런 교육을 받아오지 않았던가.

앎은 주체가 생존하는 거주공간이자 주체가 실현하는 체험의 장이다. 삶이 진공으로 처리되는 앎은 교육에서 존재 이유를 상실한다. 그런데 선은 주체가 살아가는 삶의 일상에서 출발하여 일상 너머로 초월하며 주체의 실존을 문제시 삼는다. 이점 때문에 앎-중심의 교육서사를 극복할 수 있는 단초로 선이 떠오른다. 우리가 앎고 있는 선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이렇다. 그

것은 우리 마음에 자양분을 지속적으로 공급하여 존재를 온통하게 해주는 작업이다. 그러면서 삶 속에서 주체의 승격을 촉발시킨다. 이런 공부의 축이 앎 중심의 교육공부에 의해 교육에서 지극 떠밀려나 있다. 이제 동양

전통의 한 자락이었던 선을 산사에서 속가의 세계로 끌어내려야 한다. 이것이 선의 현재적 소환이다. 그리고 나서 탈식민화의 여정으로 선이 전해주는 교육적 메시지를 진지하게 관독해야 하리라.

약력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학대학원 철학 박사

· 주요 저작: <선문답의 탈근대 교육>(아름다운세상, 1999) · 역서: <선문답: 가르침과 배움의 현상학>(경서원, 1998) · <동양의 인간과 세계: 물리에 서 인리로>(철학과현실사, 2000)

21세기를 선도할 불교지도자 양성의 요람

“30년의 전통” 생활불교 운동의 기수 2000학년도

한국불교 통신대학 대학원 신입생 모집

한국불교의 저변확대와 질적 향상을 위한 실선 교역자 양성에 심혈을 기울여 온 본 대학에서는 21세기를 선도할 새로운 교역자 양성과 불자교육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한국불교통신대학연혁】

1965. 10. 24. 본 대학의 설립자이신 한정섭박사님께서 강원에 가지 못하는 스님과 불교를 체계적으로 연구하고자 하는 일반인들을 위해 교육원의 필요성을 인식, 당시 동국역경원장 이원허스님, 화운사 조실 김대은스님, 동국대학원 원장 김동화박사님을 모시고 통신교재 편찬(12년간)

1976. 7. 18 2년 과정의 불교통신교육원 개원(관허)

1983. 9. 5 불교통신대학 승격 초대학장으로 안덕암대중사 취임

1984. 8. 15 불교통신대학원 1년 과정 개설 초대 대학원장 조중현대중사 취임

1988. 1. 10 제2대 대학원장 한정섭박사 취임

1997. 3. 12 (사)한국불교 금강선원 이사장 한정섭 대법사 취임

1999. 10.30 제3대 학장 한정섭박사 취임

제3대 대학원장 석승륜스님 취임

1. 모집학과
  - (1)대학: 불교포교학과, 승가학과, 불교학과
  - (2)대학원: 경허과, 논학과, 선학과, 율학과, 삼장학과
2. 입학자격
  - (1)포교학과는 고졸이상 동등 학력소지자.
  - (2)승가학과는 출가입사 희망자로서 본 대학 기숙사에서 6개월 이상 합숙훈련이 가능한자(2000.11.9. 입제시)
  - (3)불교학과는 학력 연령 제한없이 누구나 지원가능
  - (4)대학원 과정은 불교교양대학 이상 수료자.
3. 교육과목 및 교재
 

한국불교통신대학 출판부 간행 “불교통신교재” 및 보조교재와 테이프에 의해서 단계적 교육으로 조직적인 교육을 실시함.
4. 전형방법
 

1차 서류심사
5. 제출서류
  - (1)입학원서(본교 소정양식)
  - (2)이력서 1통
  - (3)주민등록등본 1통
  - (4)반 영함판사진 3매

6. 원서교부 및 전형
  - (1)중앙교육원 02) 969-2410, 962-1666 (FAX) 02-969-4981
  - (2)연수원(상리형 수도원) 031) 584-0657
  - (3)부산교육원 051)703-7237
  - (4)대구교육원(053)743-1178
  - (5)구미교육원 054)455-1068
  - (6)충북교육원(043)223-9026
  - (7)대전교육원 043)646-3023
  - (8)안산교육원(031)431-4951
  - (9)포천교육원 031)532-4565
  - (10)전해교육원(055)546-4186
  - (11)하연교육원(808)550-4313
  - (12)수원교육원(031)244-4467
7. 합격자 발표
 

심사후 합격자에 한해 합격통지서를 개별 우송함.
8. 특 전
  - (1)재학중 수업료 전액 면제(년 4회 정기교육 수련비만 부담)
  - (2)본 대학은 초종파 통불교를 지향하므로 어느 종파에도 통함.
  - (3)졸업시 법사(일반), 포교사(스님)자격증을 겸수
9. 기타 상세한 문의
 

한국불교 통신대학 중앙교육원 : ☎ (02)962-1666, 969-2410

한국불교예술대학 제3기 수강생 모집

(사)한국불교금강선원 부설 한국불교예술대학에서는 불교예술의 계승발전과 불교예술 지도자 양성을 목적으로 무형문화재 제9호(작법무예 기능보유자) 김해강 큰스님의 범음과 범부를 전수코자 제3기 수강생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불교전통예술에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아 래

1. 모집인원: 선착순 12명
2. 모집기간: 10월 24일까지 (24일 오전11시 입학식)
3. 교육과정: 1·2학기(1년)·기본과정 3·4학기(1년)·연구과정
4. 동창회비: 월 10만원
5. 특 전: 1) 기본과정 1,2학기 수강자는 수료증수여. 2) 3,4학기 연구과정 수료자에 한하여 심사를 거쳐 품수자격증을 수여함.
6. 문 의: 02)962-1666, 969-2410 Fax : 02)969-4981
7. 교육과정

교육과정	교육내용	교육시간	교수
1년 기본과정	1학기	육법공양 작법무·의식(석문의범) 강의	김진하 스님 한정섭 법사
	2학기	천수바라 작법무·의식(석문의범) 강의	김진하 스님 한정섭 법사
1년 연구과정	3학기	운심계 작법무, 사다라니 작법무·의식(석문의범) 강의	김진하 스님 한정섭 법사
	4학기	삼귀의 작법무, 대계 작법무·의식(석문의범) 강의	김진하 스님 한정섭 법사

\* 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경할 수 있음